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자아존중감 및 직업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Volunteering, Self-esteem and Job-esteem 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신미아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Mi-A Shin(masin@cdu.ac.kr)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자아존중감 및 직업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전라남북도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3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봉사활동은 대상자의 34.8%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성별, 종교, 경제상태, 학교생활만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존중감은 종교와 학교생활만족에서 전공만족도는 학년, 경제상태, 학교생활만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봉사활동만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존중감은 봉사활동경험과 봉사활동횟수에서 그리고 전공만족도는 봉사활동횟수, 봉사활동일, 봉사활동만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생활만족,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생활만족, 자아존중감 및 직업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봉사활동 | 자아존중감 | 직업존중감 | 전공만족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n the effects of volunteering, self-esteem and job-esteem on major satisfaction among the nursing students.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39 nursing students at 2 university in south and north Jeolla-do. 34.8% of the respondents have done volunteer work.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sex, religion, economic status, satisfaction of school life and Job-esteem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religion, satisfaction of school life. Major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grade, economic status,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action on the volunteering work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self-esteem statistically and volunteering experience and the number of volunteering has significant effect on the job-esteem. Major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number of volunteering work, days of volunteering and satisfaction in volunteering work. Related factors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was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elf-esteem and job-esteem. Through this result, it could be suggested that is a need for a strategies to increase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elf-esteem and job-esteem in order to improve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 keyword : | Volunteering | Self-esteem | Job-esteem | Major Satisfaction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 발달과정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1] 대학생할 적성과 함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2]. 학업성취가 향상된 학생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며[3],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4]. 대학생은 고등학교 때 입시준비로 인해 제대로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대학에 들어오기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받게 되며[5] 부정적으로 영향 받은 학업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낮다[6]. 특히, 간호대학생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4년 동안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방대한 양의 전공과목과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며[7] 학업성적,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인해 일반 여대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편이다[8].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차후 현장에 근무하게 될 간호전문직에도 영향을 주고[9] 전공만족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3] 대학시기에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5].

대학시기는 졸업 후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전공으로 연결되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10]. 자아존중감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현재 혹은 미래에 갖게 될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나 기대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직업존중감이라고 하는데[11] 직업존중감은 전공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12]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이 좋을수록 직업존중감은 높고 자신의 직업이 부정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인식한다[11].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공이 직업 선택과 일치하고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명성이 좋을 때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3]. 반면, 입학당시 성적이나 부모 권유에 의해 전

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낮으며[10]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임상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을 때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쳐 자신의 직업에 대해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므로[14]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15].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봉사활동이 영향변수로 대두되고 있는데[16-18], 봉사활동은 인간 상호간의 가치적 삶을 창조하기 위한 인간과 환경, 제반제도의 가치적 변화 노력과 관련된 활동으로[19], 1995년 이후 많은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선택과목 또는 필수과목으로 운영하면서 대학의 질을 높이고 대학생의 자기 계발을 실현해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17]. 대학생은 다른 자원봉사자에 비해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20] 봉사활동의 필요성 증가와 함께 자원봉사단체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우수한 봉사자들로 각광받고 있다[19].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왕성한 육체적 건강과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유를 가지기 때문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21]. 특히,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은 인문 사회분야 교과목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간호의 본질을 경험하고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간호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22].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봉사활동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봉사활동 실태조사[20][23], 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16][18][24], 봉사활동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17][25]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이 전공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간호학문을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19] 간호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및

전공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하고 있는 논문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을 고취시키고 역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22]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존중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자아존중감 및 직업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봉사활동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전공만족도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및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남북도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임의표출하여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와 자료수집에 동의 및 허락을 해준 일 대학의 교수와 본 연구자가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대학 입학 후 봉사활동 경

험에 대해 응답을 하도록 설명하였고 응답 즉시 회수하였다.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들에게는 설문지와 함께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지 작성에는 1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배포된 총 350부의 설문지 중 무응답처리가 많은 11부를 제외한 총 339부(96.8%)를 최종 분석대상에 이용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version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α) 0.05, 효과크기(f^2) .15, 검정력($1-\beta$)을 95%로 하여 Power Analysis를 시행했을 때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에 필요한 표본수는 230명 이상이므로 본 대상자 339명은 적절한 표본수로 볼 수 있다.

3. 연구도구

3.1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26],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26]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제[27]가 번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소연 등[16]이 수정하여 사용했던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5개의 긍정 문항과 5개의 부정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부정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소연 등[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직업존중감

직업존중감이란 자신의 현재 직업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평가 및 기대를 의미하며[11], 본 연구에서는 유창근[12]과 손봉희 등[22]이 사용했던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손봉희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만족정도를 말하며[13],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학과평가 조사지를 토대로 김계현과 하혜숙[13]이 작성한 학과만족 도구를 수정하여 손봉희 등[22]이 사용했던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손봉희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1$ 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및 전공만족도는 t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86.4%이고 남학생은 13.6%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3학년 27.4%, 2학년 25.7%, 4학년 24.2%, 1학년

22.7%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 40.4%, 없음 38.6%, 천주교 13.0%, 불교 8.0%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상태는 '중' 64.0%, '하' 20.0%, '상' 16.0%순이었다. 학비제공은 부모님 74.9%, 학자금 대출 12.5%, 스스로 알아서(아르바이트, 장학금) 9.1%, 기타 3.5%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만족은 보통 45.2%, 만족 34.2%, 불만족 20.6%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39)

특성	구분	n(%)
성별	여학생	293(86.4)
	남학생	46(13.6)
학년	1학년	77(22.7)
	2학년	87(25.7)
	3학년	93(27.4)
	4학년	82(24.2)
종교	기독교	137(40.4)
	불교	27(8.0)
	없음	131(38.6)
	카톨릭	44(13.0)
경제상태	상	51(16.0)
	중	217(64.0)
	하	71(20.0)
학비 제공	부모님	254(74.9)
	스스로 알아서	31(9.1)
	학자금 대출	42(12.5)
	기타	12(3.5)
학교생활 만족	만족	116(34.2)
	보통 만족	153(45.2)
	불만족	70(20.6)

2. 대상자의 봉사활동 특성

대상자의 봉사활동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학 입학 후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65.2%, 경험이 있는 경우는 34.8%이었으며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전공 관련 봉사활동은 62.7%, 관련 없는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는 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을 기준으로 알아본 봉사활동횟수는 1회 이하 54.2%, 4회 이상은 30.5%, 2-3회는 15.3%순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분야는 노인복지시설 24.6%, 학습지도 21.2%, 장애인 시설 18.6%, 고아원시설 13.6%, 기타 11.9%, 병원 및 보건소 10.1%이었다. 봉사활동일은 주말 56.8%, 평일 39.8%, 방학 3.4%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27.1%, 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22.9%, 학점과 취업을 위해서 21.2%, 성취감을 위해서 14.4%, 다른 사람의 제안으로 11.0%, 중

교적인 이유가 3.4%순이었다. 봉사활동만족에서는 ‘만족’ 78.8%, ‘보통 만족’ 18.7%, ‘불만족’ 2.5%이었고, 봉사활동 참여하는 태도는 적극적인 편 70.3%, 보통인 편 25.5%, 소극적인 편 4.2%이었다. 봉사활동 필요성 여부에서는 필요 86.4%, 보통 필요 11.9%, 필요 없음 1.7%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전공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 및 전공만족도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성별($t=-2.390, p=.017$), 종교($F=3.007, p=.030$),

경제상태($F=9.830, p=.030$), 학교생활만족($F=12.09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종교가 불교로 응답한 대상자가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경제상태가 좋고 학교생활 만족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존중감은 종교($F=3.041, p=.029$), 경제상태($F=3.850, p=.022$), 학교생활만족($F=4.092, p=.018$)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직업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학년($F=5.596, p=.001$), 경제상태($F=6.336, p=.002$), 학교생활 만족($F=57.05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년이 저학년이고 경제상태가 좋고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전공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봉사활동 특성

특성	구분	n(%)
봉사활동 경험	없음	221(65.2)
	있음	118(34.8)
전공관련 봉사	아니오	44(37.3)
	예	74(62.7)
봉사활동 횟수 (1개월)	1회이하	64(54.2)
	2-3회	18(15.3)
	4회이상	36(30.5)
봉사활동 분야	고아원시설	16(13.6)
	장애인 시설	22(18.6)
	노인복지시설	29(24.6)
	병원, 보건소	12(10.1)
	학습지도	25(21.2)
봉사활동일	평일	47(39.8)
	주말	67(56.8)
	방학	4(3.4)
봉사활동 계기*	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27(22.9)
	자신의 성장과 발전	32(27.1)
	성취감	17(14.4)
	다른사람의 제안	13(11.0)
	학점, 취업	25(21.2)
봉사활동 만족	만족	93(78.8)
	보통 만족	22(18.7)
	불만족	3(2.5)
참여태도	적극적인 편	83(70.3)
	보통	30(25.5)
	소극적인 편	5(4.2)
봉사활동 필요성	필요	102(86.4)
	보통 필요	14(11.9)
	필요 없음	2(1.7)

*다중응답처리

4. 대상자의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전공만족도

대상자의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 및 전공만족도는 [표 4]와 같다.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봉사활동 만족($F=3.378, p=.038$)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직업존중감에 있어서는 봉사활동 경험($t=-2.600, p=.010$), 봉사활동 횟수($F=3.976, p=.02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공만족도는 봉사활동 횟수($F=4.740, p=.011$), 봉사활동일($F=3.876, p=.023$), 봉사활동 만족($F=4.033, p=.0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봉사활동 만족이 좋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 및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r=.293, p=.000$),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r=.376, p=.000$), 직업존중감과 전공만족도($r=.408, p=.000$)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전공만족도

특성	구분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전공만족도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성별	여학생	3.65±.55	-2.390 (.017)	3.45±.45	-.294 (.769)	3.54±.59	-1.622 (.106)
	남학생	3.86±.65		3.47±.38		3.69±.67	
학년	1학년	3.63±.63	.436 (.728)	3.43±.45	.662 (.576)	3.76±.55 ^a	5.596 a)c,d (.001)
	2학년	3.69±.54		3.50±.43		3.61±.56 ^b	
	3학년	3.72±.61		3.45±.46		3.48±.51 ^c	
	4학년	3.65±.50		3.41±.42		3.41±.72 ^d	
종교	카톨릭	3.72±.62 ^a	3.007 c)d (.030)	3.59±.50	3.041 (.029)	3.66±.62	1.008 (.389)
	기독교	3.72±.60 ^b		3.49±.45		3.51±.66	
	불교	3.89±.57 ^c		3.41±.42		3.67±.54	
	없음	3.58±.51 ^d		3.38±.40		3.55±.54	
경제상태	상	3.97±.62 ^a	9.830 a)b,c (.030)	3.61±.49 ^a	3.850 a)b (.022)	3.80±.64 ^a	6.336 a)b,c (.002)
	중	3.66±.52 ^b		3.42±.43 ^b		3.55±.56 ^b	
	하	3.52±.62 ^c		3.42±.41 ^c		3.42±.63 ^c	
학비제공	부모님	3.69±.56	.769 (.512)	3.45±.43	.161 (.923)	3.56±.57	1.667 (.174)
	스스로 알아서	3.60±.58		3.47±.44		3.49±.62	
	학자금 대출	3.74±.65		3.43±.50		3.70±.67	
	기타	3.49±.53		3.53±.45		3.31±.83	
학교생활 만족	만족	3.89±.57 ^a	12.091 a)b,c (.001)	3.51±.44 ^a	4.092 a)c (.018)	3.91±.54 ^a	57.057 a)b,c (.001)
	보통만족	3.62±.55 ^b		3.47±.42 ^b		3.55±.48 ^b	
	불만족	3.50±.55 ^c		3.31±.47 ^c		3.02±.60 ^c	

표 4.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전공만족도

특성	구분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전공만족도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봉사활동 경험	무	3.64±0.56	-1.617 (.107)	3.40±0.41	-2.600 (.010)	3.53±0.56	-.894 (0.372)
	유	3.74±0.58		3.53±0.47		3.59±0.65	
전공관련 봉사	아니오	3.80±0.61	0.762 (.448)	3.60±0.51	1.230 (.202)	3.67±0.60	0.941 (0.349)
	예	3.71±0.57		3.49±0.43		3.55±0.68	
봉사활동 횟수 (1개월)	1회 이하	3.68±0.55	1.026 (.362)	3.45±0.46	3.976 (.021)	3.48±0.70	4.740 (.011)
	2-3회	3.78±0.63		3.50±0.52		3.48±0.68	
	4회이상	3.85±0.63		3.71±0.42		3.87±0.47	
봉사활동 분야	고아원 시설	3.86±0.57	1.266 (.284)	3.75±0.64	2.237 (.051)	3.65±0.41	0.897 (.486)
	장애인 시설	3.47±0.50		3.37±0.44		3.45±0.53	
	노인복지시설	3.80±0.58		3.53±0.39		3.54±0.80	
	병원, 보건소	3.73±0.78		3.32±0.49		3.54±0.71	
	학습지도	3.80±0.52		3.67±0.35		3.82±0.64	
	기타	3.81±0.59		3.47±0.47		3.52±0.65	
봉사활동일	평일	3.73±0.55	1.430 (.243)	3.62±0.44	1.562 (.214)	3.79±0.62	3.876 (.023)
	주말	3.78±0.59		3.48±0.48		3.47±0.65	
	방학	3.27±0.64		3.33±0.35		3.33±0.56	
봉사활동 계기	도와주기 위해서	3.96±0.66	1.076 (.378)	3.50±0.58	0.613 (.690)	3.66±0.51	1.982 (.087)
	자신의 성장과 발전	3.70±0.61		3.51±0.44		3.70±0.60	
	성취감 위해서	3.72±0.41		3.64±0.52		3.71±0.65	
	다른사람의 제언	3.66±0.52		3.37±0.34		3.65±0.57	
	학점, 취업	3.64±0.59		3.60±0.41		3.24±0.78	
종교적인 이유	3.57±0.40	3.56±0.31	3.83±0.82				
봉사활동 만족	만족	3.80±0.57	3.378 (.038)	3.58±0.49	2.536 (.084)	3.67±0.66 ^a	4.033 a)b,c (.020)
	보통 만족	3.56±0.59		3.38±0.27		3.40±0.52 ^b	
	불만족	3.13±0.25		3.16±0.61		2.77±0.25 ^c	
참여태도	적극적인 편	3.80±0.63	1.615 (.203)	3.52±0.48	0.779 (.461)	3.60±0.67	0.026 (.974)
	보통	3.61±0.40		3.51±0.34		3.60±0.59	
	소극적인 편	3.52±0.56		3.79±0.78		3.53±0.85	
봉사활동 필요성	필요	3.77±0.59	1.143 (.322)	3.56±0.47	1.910 (.153)	3.33±0.62	1.484 (.231)
	보통 필요	3.62±0.51		3.43±0.40		3.43±0.85	
	필요 없음	3.25±0.77		2.98±0.40		3.00±0.47	

표 5.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전공만족도 관계

변수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1		
직업존중감	.293** ($\langle .001$)	1	
전공만족도	.376** ($\langle .001$)	.408** ($\langle .001$)	1

** $p < .01$

6.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및 전공만족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인구학적 특성 중 경제상태, 학교생활만족 그리고 봉사활동 특성 중에서는 전공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봉사활동일, 봉사활동만족, 봉사활동횟수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을 투입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상태, 학교생활만족, 봉사활동일, 봉사활동만족, 봉사활동횟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고 회귀모형은 인구학적 특성요인만 투입한 인구학적 특성모형과 여기에 봉사활동 특성요인을 투입한 봉사활동 특성모형, 여기에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을 추가로 투입한 존중감모형으로 나누어 모형 설명력의 증감을 분석하였다.

오차의 자기상관 검증에서는 세 모형의 D-W 통계량

이 2.039-2.132로 자기상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은 허용오차가 0.116-0.816로 0.1이상이며, VIF값도 1.178-8.614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모형에 경제상태와 학교생활만족을 투입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F=8.664$, $p < .001$) 설명력은 23.5%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교생활만족 '만족'(t=5.523, $p < .001$), 학교생활만족 '보통'(t=4.241, $p < .00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특성모형에 봉사활동 특성요인 중 봉사활동일, 봉사활동만족, 봉사활동횟수를 투입한 봉사활동 특성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F=6.472$, $p < .001$) 설명력은 37.7%로 인구학적 특성모형에 비하여 14.2%가 증가하였다. 전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교생활만족 '만족'(t=5.286, $p < .001$), 학교생활만족 '보통'(t=4.193, $p < .001$), 봉사활동만족 '만족'(t=2.339, $p = .030$), 봉사활동횟수 4회 이상(t=2.652, $p = .01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봉사활동 특성모형에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을 투입한 존중감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F=9.537$, $p < .001$) 설명력은 52.2%로 봉사활동 특성모형에 비하

표 6.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전공만족도												
	인구학적특성모형				봉사활동특성모형				존중감모형				
	β	t	p	VIF	β	t	p	VIF	β	t	p	VIF	
인구학적 특성	경제상태- 중	-.130	-1.326	.188	1.416	-.131	-1.386	.125	1.523	.001	.015	.988	1.644
	경제상태- 하	-.109	-1.106	.271	1.440	-.053	-.549	.252	1.619	.098	1.087	.279	1.781
	학교생활만족-만족	.674	5.523	$\langle .001$	2.200	.614	5.286	$\langle .001$	2.315	.605	5.894	$\langle .001$	2.315
	학교생활만족-보통	.514	4.241	$\langle .001$	2.170	.481	4.193	$\langle .001$	2.259	.473	4.621	$\langle .001$	2.297
봉사활동 특성	봉사활동일-주중					.161	.727	.330	8.446	.005	.027	.978	8.614
	봉사활동일-주말					-.059	-.267	.120	8.418	-.191	-.968	.335	8.568
	봉사활동만족-만족					.482	2.239	.030	7.303	.295	1.590	.115	7.554
	봉사활동만족-보통					.355	1.743	.122	7.111	.230	1.271	.207	7.218
	봉사활동횟수- 2,3회					-.013	-.148	.222	1.225	.012	.160	.873	1.229
	봉사활동횟수-4회이상					.220	2.652	.010	1.178	.143	1.908	.059	1.230
존중감	자아존중감									.313	4.194	$\langle .001$	1.225
	직업존중감									.234	3.119	$\langle .001$	1.239
R^2		.235				.377				.522			
Adj. R^2		.208				.319				.467			
R^2 변화량		.235				.142				.145			
F(p)		8.664($\langle .001$)				6.472($\langle .001$)				9.537($\langle .001$)			
DW		2.132				2.124				2.039			

주: 경제상태 0=상, 학교생활만족 0=불만족, 봉사활동일 0=방학, 봉사활동만족 0=불만족, 봉사활동횟수 0=1회이하

여 14.5%가 증가하였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만족 '만족'(t=5.894, $p<.001$), 학교생활만족 '보통'(t=4.621, $p<.001$), 자아존중감(t=4.194, $p<.001$)과 직업존중감(t=3.119, $p<.001$)이 전공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간의 회귀식의 영향력을 분석해 보면 존중감 모형이 봉사활동 특성모형보다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봉사활동 특성모형이 인구학적 특성모형보다 설명력이 증가하여 전공만족도에는 인구학적 특성요인보다 봉사활동 특성요인이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존중감요인이 봉사활동 특성요인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입학 후 봉사활동 경험은 34.8%로 나타났다. 이는 60.8%의 대학생이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는 결과[19]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봉사활동이 교양필수로 교육과정에 구성되어 있으면서 외부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선행연구 대상자들의 학교와는 달리 본 연구대상자의 학교의 봉사활동은 교육과정 이수과정에는 포함되나 실질적인 외부 봉사활동이 아닌 이론학습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과정내에 봉사활동을 포함시켜 최소 시간이라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봉사활동 경험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62.7%는 전공과 관련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85.7%가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선호한다고 보고하였고[20] 전공과 관련된 봉사는 전공에 대한 이해도 및 확신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여[12]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전공과 연계된 봉사활동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전공학과 차원에서 봉사활동 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봉사활동 참여는 1개월 동안 1회 이하 참여하는

경우가 54.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의 봉사활동이 월 1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19] 대부분의 대학생이 일회성 봉사에 그친다는 결과[28]와 일맥상통하였다. 그러나 봉사활동은 지속성의 개념이 포함된 자발성 활동으로[23] 봉사활동 지속의지는 봉사활동 만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9] 일회성이나 가끔씩 하는 봉사활동은 효과성이나 지속성의 개념으로 볼 때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은 주로 노인과 장애인 사회 복지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의 66.7%가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이 양로원과 고아원 복지시설이라고 응답한 결과[20]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56.8%의 대상자가 주로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주말에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20]와도 동일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봉사활동 참여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학점과 취업을 위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 결과[19][30]에 의하면 자신의 성장과 남을 돕기 위해서, 학점취득을 위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 봉사활동 만족은 78.8%의 간호대학생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84.9%의 대상자가 봉사활동에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30]와도 동일하였다. 또한, 70.3%의 간호대학생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의 다수가 적극적인 태도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결과[19]와도 유사하였으며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이 봉사활동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5.2%의 대상자가 봉사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보고[20]와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타적 혹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간호대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태도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어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필요성도 대부분의 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봉사활동을 운

영 및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목적과 이타적인 목적이 동시에 달성되어 봉사활동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상체계와 함께 봉사활동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그리고 전공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먼저 자아존중감은 성별, 종교, 경제상태, 학교생활만족이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종교가 불교이고 경제상태가 좋고 학교생활을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은[24]의 대학생활 만족, 윤정애[30]의 학년, 생활수준, 대학생활 만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대학생활 만족이 자아존중감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만족을 저해 및 향상시키는 요인을 재학생과 졸업생을 통해 향후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중재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직업존중감에서는 종교, 경제상태, 학교생활만족이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경제상태가 좋고 학교생활을 만족할수록 직업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2]와는 차이가 있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존중감을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여 추후 재분석을 통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만족도는 학년, 경제상태, 학교생활만족이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학년이 지학년이고 경제상태가 좋고 학교생활 만족이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권영미 등[17]이 고학년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1~4학년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면, 선행연구의 대상자는 1학년이 제외된 2~3학년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로 사료되어진다. 따라서 차후에는 전 학년이 포함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해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재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학교생활만족이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 그리고 전공만족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생활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체계가 기반이 된다면 전공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는 바, 이

에 대한 방안으로 동아리활동, 취미활동, 멘토링 활동, 봉사활동을 학교생활만족의 중요한 매개체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 그리고 전공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봉사활동만족이 영향을 미쳤다. 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봉사활동만족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여[30][31] 본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가족이나 주변인의 관심과 심리적 지지, 봉사활동기관의 교육과 지도감독, 봉사활동의 사후관리등을 통해 봉사활동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직업존중감은 봉사활동경험과 봉사활동횟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먼저 봉사활동의 경험이 직업존중감의 영향변수로 고려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봉사활동횟수가 많을수록 직업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논문이 없어 이 부분을 논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나 본 결과를 볼 때, 가끔씩 하는 봉사활동보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봉사활동을 할 경우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기대와 고민을 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비교할 선행논문이 없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존중감을 파악한 선행 결과가 없어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전공을 포함한 반복연구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전공만족도는 봉사활동횟수, 봉사활동일, 봉사활동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봉사활동만족이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봉사활동만족이 좋을수록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권영미 등[17]의 결과와 비슷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전공만족도의 결과는 봉사활동을 제공할 때 학점인정, 봉사활동 부분의 장학금 지급이나 상장수여, 취업시 봉사활동의 적극적인 반영 등의 다양한 보상지원을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공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사료

된다. 그러나 봉사활동 경험이 직업존중감과 달리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 입학 후 봉사활동 경험이 34.8%로 봉사활동의 영향력을 예측하기에는 다소 적은 수치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파악이 된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다수의 대상자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를 파악하는 한편, 타 전공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본 결과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고[4] 직업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22]와 동일하게 나타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공만족도에는 학교생활만족,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역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봉사활동 특성이 전공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봉사활동을 경험한 연구대상자가 많지 않은 결과로 사료되며 차후에는 봉사활동 경험대상자와 비경험대상자를 비교하고 동시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시기와 봉사활동 기간 및 활동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자아존중감 및 직업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의 봉사활동 경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 및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봉사활동 경험이 낮은 대상자의 봉사활동

의 영향정도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본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을 포함시키고 봉사활동 경험정도가 높은 대상자의 봉사활동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본 연구결과를 재 논의하기 위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전공만족도에는 학교생활만족,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생활만족,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에 그 의의를 둔다.

참 고 문 헌

- [1] M. Rosenberg,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 [2] K. H. Trzeniewski, M. B. Donnellan, T. E. Moffitt, R. W. Robins, R. Poulton, and A. Caspi, "Low self 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s poor health, criminal behavior and limited economic prospects dur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2, No.2, pp.381-390, 2006.
- [3] 양영옥, 이선옥,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간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12권, 제2B호, pp.979-989, 2012.
- [4] 정미현, 신미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70-177, 2006.
- [5] 김영희, "간호대학생들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료분석학회지*, 제13권, 제4호, pp.2003-2014, 2011.
- [6] 이미경,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2009
- [7] 김희숙,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2권, 제4호, pp.385-393, 2003.

- [8] 성기월, 박오레, 이원희,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분노표현, 주장행동 및 자아존중감 비교”,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1권, 제1호, pp.1-11, 2010.
- [9] 황성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05-213, 2006.
- [10] 임은미, 박승민, 임영숙,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과 전공만족도, 전공 및 직장선택 기준의 차이”, *청소년학 연구*, 제16권, 제10호, pp.33-50, 2009.
- [11] 이민순, “항공운항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직업준중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6호, pp.370-378, 2009.
- [12] 유창근, “대학생의 직업준중감과 전공과의 관계 연구:관광관련 전공학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19권, 제4호, pp.69-86, 2007.
- [13] 김계현, 하혜숙, “대학생의 학과만족의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1권, 제1호, pp.7-20, 2000.
- [14] D. Barron, E. West, and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12, pp.46-51, 2007.
- [15] 권영미, 윤은자,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 사회성,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3권, 제3호, pp.285-292, 2007.
- [16] 박소연, 김진경, 이택영, “대학생의 전공관련 자원봉사가 자존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 pp.376-384, 2011.
- [17] 권영미, 주혜주, 조경미,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욕구충족, 사회성, 전공만족도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0권, 제1호, pp.20-32, 2004.
- [18] 이성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2호, pp.313-335, 2009.
- [19] 이해숙, “대학생의 의식구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9권, 제2호, pp.276-287, 2003.
- [20] 김영희, “간호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 *심리행동연구*, 제2권, 제2호, pp.47-59, 2010.
- [21] 홍연숙,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지속결정요인”, *청소년 복지학*, 제4권 제1호, pp.75-97, 2002.
- [22] 손봉희, 김영미, 전인경, “간호대학생의 직업준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 연구”,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제20권, 제3호, pp.240-249, 2011.
- [23] 김옥, 송미영, “대학생의 자원봉사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pp.329-359, 2006.
- [24] 이창은,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의식, 자아존중감,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논문집 동남보건대학*, 제21권, 제1호, pp.167-175, 2003.
- [25] 신미아, 안권숙, “치위생학, 간호학 전공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직업준중감 조사”,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2권, 제6호, pp.1090-1100, 2012.
- [26]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7] 전병제, “자아존중감; 측정검사”, *연세논총*, 제11권, pp.107-124, 1974.
- [28] 이화인, “대학생의 사회봉사동기, 태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9권, 제1호, pp.104-114, 2003.
- [29] 강중수, “자원봉사활동 직무특성이 활동만족도와 지속의지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pp.322-330, 2012.
- [30] 윤정애,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1] 박성복, 김규희,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복지행정논총*, 제18권, 제2호, pp.91-113, 2008.

저 자 소 개

신 미 아(Mi-A Shin)

정회원



- 2005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
과(간호학박사)
- 1998년 9월 ~ 2013년 현재 : 초
당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봉사활동, 태교, 이주여성